

西洋服 파스닝(fastening)의 變遷에 關한 考察

裴 水 晶

全南大學校 家政大學 衣類學科 專任講師

A Review of the Changes of Fastening Types in Western Costume

Soo-jeong Bae

Full time Lectur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overview the periodical changes of the fastenings, from the pins and buttons in ancient age to the velcro in these days, and to study the relationships of these various fastenings to the costume types, and also to research how it is applied to the latest fashion.

The fastening is closely related to the costume types, being various in its form, like pins, fibula, brooches, buttons, lacing, points, hooks & eyes, press studs, zipper and velcro. It is clear from the fact that the fastenings have developed remarkably since 13th century when the costume became tightly fitting to the body, while the fastenings had been very simple, like buttons or fibula, for so long time from the ancient time to the 12th century. The end of fastening's development is to be fitting to the body and to make it easy to take on or off the costumes by use of it.

In '99 S/S, '99 - 00 A/W prêt-à-porter collections, ornamental fastening was more emphasized than practical one, probably due to the development of more stretchable fabric.

I. 서론

복식 역사상 신체에 잘 맞는 의복을 착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파스닝이 있어왔다. 특히 파스닝은 입체적인 의복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으로 의복의 형태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쉽게 풀어지지 않는 보다 안전한 파스닝의 추구는 입체적인 의복의 발전을 위한 일종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상 최초의 파스닝의 출현은 선사시대로, 길이가 짧은 뼈, 나무, 청동 등으로 만들어진 원시적 형태의 핀이나 단추였다. 이 증거는 고대 이집트와 페르시아(현재의 이란), 그리스의 유적지에서 출토된 구멍 뚫린 구슬형태의 단추들로서 현대의 개념으로는 단추라고 부르기조차 어려운 매우 원시적인 형태들이었다. 고대의 의복은 그 형태가 드레이퍼리형이거나 신체에 밀착되지 않는 여유있는 형태였으므로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장식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¹⁾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아 그 사용목적은 아직

분명히 밝혀진 바가 없다.²⁾³⁾

의복의 형태변화와 더불어 단추나 핀 이외에도 끈으로 타이트하게 조이는 방법인 레이싱(lacing)이 고안되었다. 신체에 잘 맞는 입체적인 의복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추나 핀이외의 파스닝이 필요하였을 것이고 이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끈으로 신체를 조이는 식으로의 파스닝의 발전은 험사리 짐작할 수 있다. 11-13세기경 입체적인 의복을 착용하기 시작하던 시대에는 신체의 허리부분을 끈으로 조이거나 바이어스 재단을 하여 자연스럽게 허리에 맞는 형태였고 이것이 더욱 발전하여 중세에 접어들자 신체의 부드러운 부분 즉, 지방이 많은 부분을 타이트하게 끈으로 조임으로서 실제의 신체 사이즈 보다 작게 신체 변형이 가해졌다. 즉, 의복에 신체를 맞춤으로서 입체적인 의복을 착용한 경우로 이는 르네상스를 거쳐 19세기에 절정에 달했다.

이후 산업혁명으로 인한 단추의 대량생산, 똑딱단추(press

studs 혹은 snap fastener), 지퍼(zipper)의 발명, 벨크로(velcro, 일명 찍찍이)의 발명 등으로 이어지면서 현재는 장식과 기능적인 면을 동시에 지닌 파스닝으로, 의복 디자인에 신선한 영감을 제공하는 역할로까지 발전하였다. 특히 최근에 나타난 하나의 경향인 디자인의 장식요소로서의 다양한 파스닝의 출현은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류 최초의 파스닝인 단추에서부터 최근의 벨크로에 이르기까지 그 변천사를 살펴보고, 이러한 다양한 파스닝이 의복의 형태와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또한 현대패션에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가를 고찰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먼저 인류 고대의 파스닝에서부터 현대의 파스닝까지의 변천사를 그 발명동기 및 의복의 형태변화와 함께 살펴보고, 이 파스닝들이 현대패션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99 봄/여름과 '99-00 가을/겨울 Prêt-à-porter 컬렉션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I. 파스닝의 변천

1. 단추(button)

단추와 단추구멍은 의복의 착용에 있어서 인체의 입체적인 형태 때문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트임을 처리해 주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며 동시에 의복의 미적 효과를 높이는 장식적인 역할을 한다. 'button'이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에 대한 정설은 없고, 고대 라틴어인 'buttare'나 고대 프랑스어의 'bouton'에서 유래하였다고 하며, 원뜻은 'bud'로서 새싹이나 봉오리를 뜻한다.⁴⁾ 단추에 대한 기록은 12세기 "Chanson de Roland"에 'boton'이라는 단어로 인류 최초로 등장하게 된다.⁵⁾

고대에 있어서 단추와 유사한 형태의 파스닝은 1865년 Danish peat-bogs에서 발견된 구멍이 뚫린 둥근 원반 모양의 초기 철기시대의 단추에서 찾아볼 수 있다.⁶⁾ 이후 이집트에서 출토된 B.C. 2500년 전의 단추와 그리스에서 출토된 B.C. 4000년 전의 단추형의 골드 디스크(gold disk) 등은 그 발전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⁷⁾ 이러한 역사이전의 단추들을 통칭하여 선사시대 단추(pre-historic buttons)라고 부르는데, <그림 1>에 제시된 선사시대 단추들은 약 B.C. 2000년의 것으로 추정된다. 단추의 형태로 보아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비즈나 뱃지, 장식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⁸⁾ 실제로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의 의복은 드레이퍼리형 의복이었으므로 실용적인 목적의 단추가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단지 흘러내리는 옷자락의 고정을 위해 원시적인 형태의 단추나 피볼라를 사용하였을 것이나, 화려하게 장식된 피볼라를 보면 이 역시 장식적인 용도가 더욱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동시대인 고대 크리트인들은 입체적인 의복을 착용하였지만 현존하는 자료에서는 실용적인 목적의 단추의 사용은 보이지 않고 가슴 아래부분을 끈으로 레이싱(lacing)한 것이 관찰된다.⁹⁾ 크리트인들은 인류 최초로 입체적인 의복을 착용한 종족으로 파스닝도 동시대의 타 종족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것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단추가 다시 나타난 13세기까지 단추는 고고인류학상으로는나 복식사상, 회화상에서 사라졌다.

단추가 다시 등장한 13세기는 십자군의 동방원정으로 인해 이슬람 문화와의 접촉이 가능해져 의복에도 이슬람 복식의 영향을 받은 시기로, 앞트임과 단추의 사용, 솜을 넣고 누비는 퀴팅(quilting)방법 등이 도입되어 중세 유럽복식에 획기적인 발전을 초래하였다. 이것은 입체적인 의복의 유행에도



<그림 1> 선사시대 단추 B.C. 2000
(출처) Diana Epstein, P.22



<그림 2> 에나멜로 제작된 18세기 단추
(출처) Diana Epstein, P.18



<그림 3> Charles of Blois의 벨르뱅앵, 1364
(출처) Naomi Tarrant, P.50

영향을 미쳐, 실용적인 목적의 단추와 단추구멍이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¹¹⁾.(그림 3참조) 또한 의복의 재단법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새로운 방법이 시도되면서 이전의 트임 방법과는 다른 파스닝이 요구되었고, 이때 단추와 끈으로 여미는 레이싱 방법이 고대 크리트복식 이후 재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3세기 이후에 단추의 사용은 급격히 증가하였고 하나의 독립된 장식품으로도 사용되었다.¹⁰⁾

13세기 중엽에 Etienne Boileau가 쓴 'Mastery of Trades'의 기록에 의하면 단추제조업자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단추의 재료에 따라 분리되어 있었다¹¹⁾고 하는데, 이는 그들의 조직이 매우 유기적이고도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에는 단추가 공예의 한 분야로 인식될 정도로 중요한 파스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더욱 발전하여 17-18세기에는 실용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장식적인 목적의 단추의 사용이 절정에 달하였다. 이 시대의 단추에는 금, 은, 루비, 다이아몬드 등의 보석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으며 이것도 부족하여 금, 은사로 단추구멍을 처리하였다. 또한 필요 이상으로 많은 단추를 달아 착용자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였다.¹²⁾ 근대이후에는 유명인사의 얼굴, 사회적 사건, 직업, 자연, 집단, 조직 등을 상징하는 문양을 단추에 새겨서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였다.(그림 2 참조)

19세기 이후에는 대량생산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단추가 생산되었다. 인체에 꼭 맞는 파스닝으로서 단추에 주어지는 압력은 트임의 위치를 등 부분에 둠으로서 감소되었다. <그림 4>는 등부분에 단추를 위치한 1810년경의 드레스¹³⁾로 입체적인 의복의 발전상을 보여준다. 결국 단추는 입체적인 의복에 더욱 안전한 파스닝이 되었고 단추구멍은 더 이상 찢어지지 않게 되었다.¹⁴⁾

2. 핀과 브로치(pin and brooch)

복식사상 최초의 파스닝은 짧고 끝이 뾰족한 동물의 뼈나 나무, 금속 등으로 제작된 것이었다. 즉, 원시적인 형태의 핀으로서 후대에 안전핀이 달린 브로치로 발전되었다. 핀은 바늘과 함께 발굴되어 그 제작의 정교함과 다양함이 바늘과 더불어 발전되었음을 알게 해준다. 핀은 파스닝으로서 사용 범위가 넓었고 많은 시대와 문화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이 출토된 유물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발굴된 핀들은 뼈, 청동, 철 등 다양한 재료로 제작된 것들이 많다. 핀의 발생 초기에는 의복을 여민다는 단순 기능이었으나 후대에는 피볼라, 브로치 등으로 발전하면서 점차 장식적이 되었다.¹⁵⁾

의복에 사용된 핀과 피볼라, 브로치는 그 형태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고고인류학적인 측면에서도 시대추측이나 그 시대의 문화를 밝혀내는데 도움이 된다. 출토된 시신에 입혀진 의복이나 부장품, 보석류, 핀과 브로치의 위치 등은 그 시대 의복의 원형이 어땠는가를 유추해 보는데 유용하다. 금속 핀이나 브로치는 지하에서 부식될 때 의복의 섬유를 광물질로 바꾸어 이면에 자국을 남기게 되는데 이것을 실험실에서 분석하면 직물의 직조상태를 알아낼 수 있다. 특히 Anglo-saxon과 Viking 시대의 의복에 관한 정보는 이 시대의 현존하는 의복이나 관련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매우 효과적인 정보원이다.¹⁶⁾

고대 그리스와 로마 유적에서 발굴된 황금으로 제작된 피볼라나 비잔틴과 중세의 보석이 정교하게 장식된 피볼라 등

주) 복식사가 Christopher Breward는 이 시기를 14세기 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Christopher Breward, The Culture of Fashion, Manchester Univ. Press, 1995, p.13



<그림 4> 등부분에 단추를 위치한 드레스, 1810년
(출처) Jane Ashelford, P.182



<그림 5> Richard Wait가 그린 'The Henwife of Castle Grant', 1726
(출처) Naomi Tarrant, P.13



<그림 6> stamacher brooch, 1770-80
(출처) The Tokyo Costume Institute P.46

은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장식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고대나 중세의 피블라가 왕족이나 귀족들만의 전유물이었던 것에 비해 보다 대중화 된 것이 브로치로서, 일반화 시키는 핀이 대량생산되기 시작한 18세기부터인 것으로 파악된다.

1726년에 Richard Waitt에 의해 그려진 “The Henwife of Castle Grant”에 묘사된 노부인의 초상화에서 청동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링 브로치를 볼 수 있다. 또한 머리에도 두장의 머리수건을 고정시키기 위한 황금색의 핀이 관찰된다.(그림 5참조) 이 그림이 그려진 18세기는 핀 제작이 중요한 산업이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핀 제작은 손으로 이루어지는 정교한 작업이었다.¹⁷⁾ 영국의 경제학자 Adam Smith는 1776년의 그의 유명한 저서 “The Wealth of Nations”에서 핀 제작과정의 예를 들어, 어떻게 분업(division of labour)을 하면 일인당 하루 핀 생산량을 18개에서 4800개로 늘릴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¹⁸⁾ 결국 이 내용은 18세기에 핀의 수요량이 증가하였음을 말하는 것으로 일부는 봉제용 핀으로, 나머지는 브로치를 제작하기 위한 핀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18세기의 회화나 복식자료 중에는 스토마커 브로치(stomacher brooch, 그림 6 참조)¹⁹⁾의 사용이 많이 관찰된다.

따라서 고대에 있어서 핀은 의복을 고정한다는 실용적인 목적에서 발생되었지만 점차 의복이 입체적이 되면서 보폭한 핀의 끝부분 처리 때문에 파스닝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봉제용 핀과 장식용 브로치의 역할로 그 기능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주로 장식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3. 레이싱과 포인트(lacing and points)

의복을 신체에 맞추는 가장 오래된 방법은 끈으로 조이는

방법인 레이싱이다. 레이싱은 의복에 여유를 줄 수도 있고 타이트하게 조일 수도 있는 파스닝이어서 여성복(임신기간이 있기 때문에)에 유용하며 11-13세기의 중세회화에서 자주 주목된다.²⁰⁾(그림 7 참조) 레이싱은 인체에 꼭 맞는 입체적인 의복의 유행과 함께 등장한 파스닝으로, 현존하는 13세기경의 스페인 출토복식 중에는 한쪽에만 레이싱이 있는 변형된 형태도 있다.²¹⁾(그림 8 참조)

레이싱은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어 잘록한 허리가 유행하자 코르셋(corset 혹은 stays²²⁾)과 상의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20세기 초반 여성복에서 코르셋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아름다운 여성의 실루엣을 위해 사용되었다. 레이싱은 스스로 착용하는 것이 어려워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이싱을 간편화한 포인트(points)가 등장하였다.

포인트는 <그림 9>와 같이 짧은 끈을 고정시키고자 하는 양 끝에 달아서 그 끈을 묶거나, 의복의 양 끝에 구멍(eyelet)을 뚫어 짧은 길이의 리본이나 테이프를 이 구멍에 끼어 의복을 타이트하게 고정시키는 파스닝으로, 상의뿐만 아니라 암홀에 소매를 달거나 더블렛에 호즈를 고정시킬 때 사용되었다. 포인트는 레이싱보다 더 쉽게 원하는 부위에 활동량을 줄 수 있고 소매나 호즈를 빨리 분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포인트는 특히 노동계층의 의복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일단 스스로 의복을 입고 벗을 수 있고 들에서 일을 할 때 상체를 굽혀도 모든 레이싱을 풀어줄 필요 없이 포인트를 약간 여유 있게 묶어주기만 하면 의복이 찢어지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²³⁾

<그림 10>은 Boccaccio의 Decameron의 내용을 그린 회화의 일부이다. 한 남자가 길에서 도둑을 만나 옷을 빼앗기는 내용을 묘사한 그림에는 옷을 벗고 있는 남자의 더블렛에서



<그림 7> 좌: 12세기 bliaud, 우: 13세기 bliaud
(출처) Carl Köhler P.141 - 143



<그림 8> 스페인 Las Huelgas에서 출토된 bliaud, 1244
(출처) François Boucher P.180



<그림 9> 포인트가 달린 여성용 doublet, 1610-20
(출처) Alice Mackrell, P.29



〈그림 10〉 Boccaccio의 Decameron을 묘사한 회화, 1430-40
(출처) Naomi Tarrant, P. 17



〈그림 11〉 Pompadour 부인의 초상, 1759
(출처) François Boucher P. 297



〈그림 12〉 궁정광대 Gonella의 초상, 1445
(출처) Naomi Tarrant P.19

프런트 레이싱을, 호즈와 더블렛의 연결 부위에서는 포인트를 볼 수 있다. 15세기의 레이싱과 포인트를 동시에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의복의 양 끝단에 짧은 테이프를 달아 이들을 리본처럼 묶어 장식효과를 낸 경우도 있는데 이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모든 시기의 노동계층의 의복에서 발견된다. 특히 리본이 많이 사용된 18세기 의상에는 바디스 양쪽에 포인트를 줄줄이 달아 스토크머 위에 묶음으로서 〈그림 11〉처럼 허리를 타이트하게 조이면서도 우아한 의복효과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4. 훅과 아이(hooks and eyes)

훅과 아이는 복식사적으로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분명치 않다. 이 파스닝은 그 성격상 의복의 안쪽에 보이지 않게 부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회화상에서는 매우 드물게 관찰된다. 회화에 나타난 가장 최초의 것으로는 1445년 Jean Fouquet가 그린 Ferrara 궁정광대 Gonella의 초상화에 묘사된 것이다.(그림 12 참조) 이 그림의 광대는 셔츠의 칼라를 젖힌 상태로 묘사되어 있어서 안쪽에 부착된 두 쌍의 훅과 아이를 볼 수 있다. 물론 15세기 중엽 이전의 것으로는 현존하는 유물이 없는 실정임으로 현재로서는 15세기 중엽이 훅과 아이의 발생시기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이후 르네상스의 전성기인 16세기 말엽은 인체과장이 극에 달해 여성복과 남성복의 허리를 지나치리만큼 심하게 조이던 시기로 타이트한 바디스의 파스닝에 주로 훅과 아이를 사용하였다.²⁴⁾ 따라서 의복의 유형과 파스닝을 관련지어 고려해 볼 때 훅과 아이는 타이트한 입체적인 의복을 보이지 않게 여미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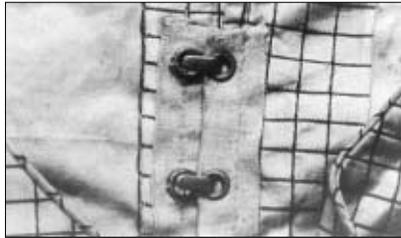
〈그림 13〉은 훅과 아이를 파스닝으로 사용한 19세기 중엽의 상의인데 오늘날의 것과는 달리 한쪽에는 금속 훅이 다른 한쪽에는 구멍(eyelet)이 있어서 이 구멍을 훅이 통과하여 의복이 여며지게 고안되어 있다. 특히 훅과 구멍은 긴 테이프에 연결된 것으로 이 테이프를 상의의 양 끝단에 봉제하여 수많은 구멍과 훅을 달아야하는 수고를 덜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상의에는 보통 15내지 18개의 단추나 훅을 달았으므로 이 금속 훅과 구멍이 뚫린 긴 테이프의 고안은 시간과 노동력 절약에 무척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오늘날의 똑딱단추나 벨크로(velcro)를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시킨 테이프의 원조인 것으로 생각된다.

19세기와 20세기초의 의복에는 의복을 신체에 잘 맞추기 위해 훅과 아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특히 찢어지기 쉬운 약한 직물의 경우는 오늘날의 브래지어처럼 정상위치의 좌우에 훅과 아이를 더 달아서 여분을 주거나 조이기 쉽게 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²⁵⁾

훅과 아이는 타이트한 의복의 여밈으로 견고하고 안전하며, 의복이 타이트할수록 더욱 그 여밈이 견고해지므로 현재는 체형 보정용 파운데이션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5. 똑딱단추(press studs or snap fastener)

19세기 후반에 발명된 똑딱단추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1885년 독일인 발명가 Heribert Bauer에 의해 발명된 'Spring-button lock'은 원래 남성용 바지의 패스너로 고안된 것으로, 1885년 3월 5일자 발명특허 No. 32496의 서술에는 다음과 같이 그 필요성이 기술되어 있다. "Spring-button lock은 남성용 바지의 여밈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장치이다."²⁶⁾ 그러나 이 패스너는 발명가가 고안한 목적 이상으로 널리 사용



<그림 13> 아일렛과 흑 타이프, 1840
(출처) Naomi Tarrant P. 21



<그림 14> Charles James의 지퍼를 사용한 드레스 광고, 1933
(출처) Vogue 1933, Naomi Tarrant P. 23



<그림 15> 벨크로를 이용한 장애인용 재킷, 1990
(출처) Nellie Thornton P.57

되어 하나의 성공적인 발명품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똑딱단추의 발명시기가 임체적인 의복의 절정기인 19세기 후반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그 성공은 이미 예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체에 전체적으로 꼭 끼는 S자형 실루엣을 완벽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조 패스너의 발명은 그 시대 의복의 실루엣을 위해 긴요한 것이었고, 전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현재는 처음 발명되었을 때보다 그 재료, 종류, 색이 더욱 다양해져 많은 색과 형태의 금속 및 플라스틱 똑딱단추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 범위도 아동복에서 작업복, 여성복, 청바지까지 매우 넓다.

똑딱단추는 대개 흑과 아이로 고정을 시킨 후 나머지 들뜨는 부분에 위치하는 보조적인 패스닝 역할이었다. 특히 여성용 블라우스의 첫 단추를 썬 앞단의 끝 부분이나 첫 단추의 위치가 낮게 시작되어 위쪽의 여밈을 필요로 할 때 많이 사용된다. 이는 여러 종류의 사이즈로 제작되며 두꺼운 의복에도 상당히 견고한 패스닝이다.

6. 지퍼(zipper)

인류 최초의 지퍼는 1893년에 열린 세계 컬럼비안 박람회(The World's Columbian Exposition)에 전시된 Whitcom L. Judson 발명의 '잠그는 짐쇠' (clasp locker)였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크고 조잡하여 그다지 인기를 끌지 못했다. 수많은 발명가들의 노력에 의해 1917년 마침내 오늘날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지퍼가 Gideon Sundback에 의해 제작되었다. 그의 '고리 없는 패스닝'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육군과 해군의 구멍조끼 및 공군의 비행복에 사용됨으로서 지퍼의 의복 사용에의 가능성을 열었다. 지퍼(zipper)라는 명칭은 1920년 B. F. Goodrich

사가 방수용 덧신에 지퍼를 사용하면서 붙인 명칭이 오늘날의 명칭으로 정착된 것이다.²⁷⁾

의복에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드럽고 유연한 지퍼가 나온 것은 1930년대로 당시의 유명 디자이너 Charles James와 Elsa Schiaparelli가 처음으로 여성복 디자인에 도입하였다. 미국인 디자이너인 James는 1933년 신체에 자연스럽게 피트되는 디자인에 지퍼를 성공적으로 사용하였고(그림 14 참조)²⁸⁾ 초현실주의적인 디자인을 즐겼던 이태리 디자이너 Schiaparelli는 장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Schiaparelli의 지퍼를 사용한 디자인은 미국인 바이어들에 의해 대량으로 주문되었으나, 프랑스제 지퍼를 사용한 드레스는 선적할 수 없다는 미국 무역국의 반대로 국제무역상 심각한 정치적 이슈가 된 적도 있었다.²⁹⁾

현재와 같은 플라스틱 지퍼는 40년대에 등장하였으나 50년대까지는 남성용 바지에조차도 지퍼의 사용은 일반적이지 않았다. 더욱 가볍고 솔기 안에 감추어질 수 있는 나일론 지퍼의 발명이후에야 비로소 지퍼는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영 패션이 유행하던 시대에는 지퍼가 유행의 일부가 되어 금속, 플라스틱 혹은 나일론 소재의 다양한 색상의 지퍼가 의복 안에 감추어지지 않고 밖으로 드러났다. 또한 바이커 룩(biker look)에서 지퍼는 필수적인 패스닝으로 등장하였다. 현재에도 바이커들이 즐겨 입는 검은 가죽 재킷에는 대조적인 색상의 금속 지퍼가 달려 있는데, 미국의 여류작가 Alison Lurie에 의하면 이 지퍼는 속도와 폭력 그리고 섹스를 암시한다고 한다.³⁰⁾ 이후 지퍼는 계속 발전되어 현재는 많은 신변 소품들과 대형 가방 등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패스닝이 되었다. 의복의 형태와 관계보다는 얼마나 빠르고,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둔

파스닝이다.

7. 벨크로(velcro)

벨크로는 현대의 가장 혁신적인 패스너로서 1948년 스위스의 엔지니어인 Georges de Mestral에 의해 발명되었다. 벨크로는 Mestral이 들에서 일을 할 때 가장자리가 뾰족한 식물의 줄기가 의복에 달라붙는 것에 착안하여 만들어졌다. 이 파스닝은 암, 수로 쌍을 이루고 있으며 털, 부착이 쉬워서 정교한 손놀림이 어려운 노인, 어린이, 장애인의 의복(그림 15 참조)³¹⁾과 짧은 시간에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무대의상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하이패션에도 사용되는 경우가 눈에 띈다.

벨크로를 파스닝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의복들은 여유분이 있는 의복들로서 타이트한 의복에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속도로 파스닝이 발전한다면 더욱 강력한 부착력이 있는 벨크로가 발명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는 타이트한 의복에도 벨크로가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한 벨크로의 단점은 세탁으로 인해 벨크로의 부착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탁시 반드시 벨크로를 채워서 세탁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현재 벨크로는 다양한 색과 사이즈, 무게로 생산되고 있으며 긴 테이프에 일정한 간격으로 벨크로를 고정시킨 벨크로 테이프 등이 시판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가방, 신발(특히 운동화류), 벨트 및 박물관에서 타피스트리 등의 거대한 텍스타일 작품을 장기간 전시할 때 사용되는 등 점차 그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의복의 유형과 관련지어 고려해 볼 때 파스닝은 현대로 내려올수록 의복의 입체적인 형태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장식성을 위한 것이거나 빠르고 쉽게 여밈을 풀고 잠그기 위한 것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는 신축성 있는 소재의 발달로 파스닝이 없이도 신체에 잘 맞는 입체적인 의복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³²⁾

III. 현대패션에 응용된 파스닝

최근의 패션경향에는 파스닝이 디자인의 주된 강조점으로 등장하거나, 파스닝을 실용적인 목적과 동시에 장식적인 목적으로 응용한 작품들이 많다. 이러한 의복들은 대개 디자인이 단순하고 파스닝에 그 디자인의 포인트를 두고 있어 단순한 복식미를 창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99년 봄/여름과 '99-00 가을/겨울 Prêt-à-porter 컬렉션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참고자료는 전세계 8개 도시(파리, 뉴욕, 런던, 밀라노, 동경, 서울,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에서 발표되는 Prêt-à-porter 컬렉션을 모두 수록한 Gap-D³³⁾를 중심으로 하였다.

먼저 가장 많이 관찰되는 파스닝은 흑과 아이이다. 이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사용된 것보다는 과장, 변형 등의 방법을 통해 의복의 밖으로 드러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림 16>은 설윤형의 디자인으로 '99-00 가을/겨울 서울 컬렉션에 발표된 것이다. 한국의 누비 저고리를 연상시키는 퀴팅 재킷의 앞단에 가지런히 사용된 19쌍의 흑과 아이는 의복을 여민다는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장식적인 성격이 더욱 강해 보인다. 이와 유사한 흑과 아이의 사용은 파리의 유서깊은 패션 하우스의 컬렉션에서도 발견된다. <그림 17>은 Balmain의 새로



<그림 16> 설윤형 작, '99-00 A/W
Seoul Collection
(출처) ELLE No.82, P. 2096



<그림 17> Gilles Dufour 작 '99-00 A/W
Paris Collection
(출처) Gap-D, Vol.2 P. 103



<그림 18> Yoichi Nagasawa 작 '99-00
A/W Tokyo Collection
(출처) Gap-D, Vol.2, P.256



<그림 19> Alexander MacQueen작 '99 S/S London Collection
(출처) Gap-D, Vol.1 P. 289



<그림 20> tristan Webber작 '99 S/S London Collection
(출처) Gap-D, Vol.1 P. 288



<그림 21> Massimo Rebecchi 작, '99-00 A/W Milano Collection
(출처) Gap-D, Vol.2 P. 325



<그림 22> Max Azria 작 '99 S/S New York Collection
(출처) Gap-D, Vol.1 P.231



<그림 23> Michel Klein작 '99-00 A/W Paris Collection
(출처) Gap-D, Vol.2 P.68



<그림 24> Takao Yamashita작 '99-00 A/W Tokyo Collection
(출처) Gap-D, V. 2,P.261

운 디자이너 Gilles Dufour³⁴⁾의 우아한 이브닝용 스커트에 매치된 스웨터로 단순한 디자인에 20쌍의 흑과 아이가 장식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다른 흑과 아이의 사용은 '99-00 가을/겨울 도쿄 컬렉션에 발표된 Yoichi Nagasawa³⁵⁾의 재킷에서 주목된다. <그림 18>의 이 재킷에는 우스꽝스러울 만큼 커다랗게 변형된 흑과 아이를 사용하였는데 이 파스닝은 실용적임과 동시에 장식적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Michiko Koshino의 디자인이나 Mark Montano³⁶⁾의 디자인 등 많은 디자이너의 컬렉션에서도 주목되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파스닝은 레이싱으로 주로 타이트한 디자인에 많이 사용된다. <그림 19>는 영국의 디자이너인 Alexander MacQueen³⁷⁾의 작품으로 '99 봄/여름 런던 컬렉션에

발표된 것이다. 마치 중세의 갑옷을 연상시키는 가죽 소재의 볼레로 재킷의 레이싱은 디자인의 포인트로서 뿐만 아니라 타이트한 의복의 훌륭한 파스닝으로 사용되었다. 역시 같은 영국인 디자이너 Tristan Webber³⁸⁾의 '99 봄/여름 런던 컬렉션에 발표된 작품에서도 레이싱의 사용이 주목된다. <그림 20>은 Webber의 작품으로 16세기 코르셋을 연상시키는 레이싱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 다른 디자이너로는 이태리 디자이너 Massimo Rebecchi³⁹⁾를 들 수 있다. <그림 21>은 '99-00 가을/겨울 컬렉션에 발표된 그의 작품으로 스커트의 앞중심에 레이싱이 사용되었다. 별도의 트임 없이 레이싱 만으로 여미는 것은 실용적인 면에서는 불편한 것으로 생각되나 장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그림 25> Salvatore Ferragamo작,
'99 S/S Milano Collection
(출처) Gap - D, Vol.1, P.166



<그림 26>Giorgio Armani작 '99-00
A/W Milano Collection
(출처) Gap - D, Vol.2 P.343



<그림 27> Nicole Miller 작 '99-00 A/W
New York Collection
(출처) Gap - D, Vol.2, P.195

레이싱에 비해 포인트의 사용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그림 22>는 BCBG Max Azria⁴⁰⁾의 디자인으로 재킷과 이질적인 소재의 테이프를 사용하여 파스닝으로서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장식적인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똑딱단추는 등산복, 운동복 등의 기능성 의복에는 그 여밈의 견고함으로 인해 실용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장식적인 목적으로의 사용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패션경향은 파스닝이 필요치 않은 스트레치 직물을 사용한 단순한 경향⁴¹⁾으로 나아감에 따라 장식 위주의 똑딱단추의 사용이 눈에 띄고 있다. <그림 23>은 Michel Klein⁴²⁾의 디자인으로 신축성 있는 소재를 사용한 단순한 디자인의 원피스 드레스이다. 박스형의 원피스 옆선에 똑딱단추 테이프를 달아 착용자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으며 똑딱단추를 앞중심에 모아서 채웠을 때 내는 효과는 색다르다. 이 경우는 실용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장식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똑딱단추의 사용은 Takao Yamashita⁴³⁾의 '99-00 가을/겨울 도쿄 컬렉션에 발표된 재킷에서 보여진다. <그림 24>의 이 재킷은 장식이 없는 단순한 테일러드 재킷으로 커다란 금속 똑딱단추만이 유일한 디자인의 포인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암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 파스닝의 역할과 함께 장식적인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추는 너무 고전적이고 기본적인 파스닝이기 때문에 현대패션에의 응용은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다. 단지 본 고에서는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단추의 경향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최근 국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함께 현대패션에는 중국풍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중국의 전통적인 파스닝인 청령두 단추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청령두 단추란 잠자리 머리모양(玲頭)으로 짜거나 매듭지어 만든 단추로 이것을 루프에 끼워 채우는 파스닝인데, 중국에서는 이 단추를 6조시대(5-7세기)부터 사용해왔다.⁴⁴⁾ 특히 중국에서 청령두 단추는 5덕을 표현한다고 해서 5개를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림 25>에 제시된 Salvatore Ferragamo의 디자인과 <그림 26>에 제시된 Giorgio Armani의 디자인에는 중국의 청령두와 같은 모양의 매듭단추가 5개씩 사용되고 있어서 마치 그 본래의 의미를 알고 사용한 듯한 느낌을 준다. 또한 현재 패션에 두드러진 단추는 토글(toggle)단추로서, 이는 나무로 만든 낚시찌 모양의 단추를 루프 고리에 걸어서 여미는 단추이다. 주로 토글 코트나 더플 코트⁴⁵⁾에 사용되는 단추이나 현재는 본래의 나무로 만든 토글 대신에 플라스틱 토글이나 버클, 벨크로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27 참조)

현대패션에서는 핀과 브로치를 파스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안전핀이 그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70년대 핑크가 유행일 당시에는 의복의 여밈은 물론 액세서리, 장신구에도 안전핀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최근의 디자인에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다. '99년도 Prêt-à-porter 컬렉션에 발표된 작품중 단 한건의 디자인에 안전핀이 파스닝으로 응용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28>은 스페인 디자이너 Nuria Mora의 디자인으로 재킷과 스커트에 장식적인 목적으로 안전핀을 사용하고 있다. 재킷의 안전핀 아래쪽에는 숨은 단추를 달아 여미고 있으므로 재킷의 안전핀은 장식용으로 보여진다.

지퍼 역시 단추처럼 현대패션에 필수적인 파스닝으로 그



<그림 28> Nuria Mora 작 '99-00 A/W
Barcelona Collection
(출처) Gap-D, V.2 P.381



<그림 29> Antonio Berardi 작 '99-00
A/W Milano Collection
(출처) Gap-D, Vol.2 P. 322



<그림 30> Takao Yamashita 작 '99-00
A/W Tokyo Collection
(출처) Gap-D, Vol.2 P.259

응용을 모두 언급하기는 어렵다. 본 고에서는 장식적인 목적으로 지퍼가 응용된 경우만으로 한정하였다. <그림 29>는 Antonio Berardi⁴⁶⁾의 작품으로 주름 스커트에 사용된 10여개의 지퍼가 완전히 겹으로 드러난 디자인이다. 지퍼 자체도 굵은 금속지퍼로 장식성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벨크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그 사용범위가 급속히 넓어지고 있는 파스닝으로 최근에는 하이패션에도 등장하였다. <그림 30>은 도쿄 컬렉션에 발표된 Takao Yamashita의 재킷으로 벨크로의 특성을 잘 살려 쉽게 입고 벗을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어, 장식보다는 실용적인 목적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IV. 결 어

이상으로 서양복 파스닝의 변천, 파스닝과 의복 형태와의 관계 그리고 다양한 파스닝의 현대패션에의 응용을 고찰하였다.

복식사상 파스닝의 발전은 원시적 형태의 핀에서부터 피볼라, 브로치, 단추, 레이싱, 포인트, 흑과 아이, 똑딱단추, 지퍼, 벨크로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고, 이 파스닝의 발전은 신체에 잘 맞는 입체적인 의복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선행요건이었다. 파스닝들은 의복의 유형에 따라 실용적인 목적과 장식적인 목적이 구분되었으며 주로 드레이퍼리형인 고대 의복의 경우에는 장식의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13세기 이후 입체적인 의복이 유행하면서부터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후대에는 실용과 장식의 목적이 병행되어 사용되었으며 현대패션 특히, 1999년 봄/여름, 가을/겨울 Prêt-à-porter 컬렉션에서는 파스닝을 디자인의 포인트로 한 단순한 의복이 주목되었다. 현대패션에 응용된 파스닝은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장식적인 성격이 강했는데, 그 이유는 신축성 있는 소재의 발달로 인해 실용적인 목적의 파스닝이 그다지 필요치 않게 된 점에 있다고 본다.

또한 이 파스닝들은 의복의 형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드레이퍼리형의 의복에서는 간단한 단추와 피볼라 만이 수세기동안(고대에서 12세기말까지) 사용되어 파스닝이 그다지 발전되지 않았고 발전의 속도도 매우 느렸던 반면, 13세기 이후 입체적인 의복을 위한 입체적인 재단법이 발달하면서부터 다양한 파스닝이 빠른 속도로 발전되어 신체에 잘 맞으면서도 착의와 탈의가 편리하게 향상되었고 의복제작 시의 노동력도 절감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레이싱의 불편함은 포인트로, 흑과 아이를 다는데 드는 노동력은 흑과 아이 테이프로, 단추구멍이 찢어지는 불편함은 단추의 위치를 등부분에 둠으로서 해결하였다. 많은 단추의 불편함은 한번에 열고 닫을 수 있는 지퍼로 해결하였으며 장애인이나 노인, 어린이들의 미숙한 손놀림을 위해서는 벨크로가 등장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즉, 신체에 잘 맞으면서도 빠르고 쉽게 의복을 입고 벗을 수 있는 방향으로 파스닝이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세기말 패션계는 '우주패션'으로 다음 세기를 준비하고 있다. Givenchy의 Alexander MacQueen과 Helmut Lang⁴⁷⁾, Stephen Sprouse⁴⁸⁾ 등이 '99-00 가을/겨울 컬렉션에서 미래패션을 선보였다. 이 의복들은 목에서 발목까지 꼭 끼는 스킨 타이트

(skin tight)한 디자인으로 가슴과 어깨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며 신축성 있는 소재의 발달로 파스닝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단지 최소한의 단추(한개 혹은 두개)와 감추어진 지퍼, 벨크로 등만이 소량 사용되었다. 따라서 미래에는 소재의 발달과 더불어 파스닝의 발전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패션경향으로 유추해 본다면 파스닝과 솔기가 거의 없는 패션시대가 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구애리나, 이순홍, 단추와 단추구멍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18호, 1992, P. 249
2. Naomi Tarrant, The Development of Costume, Routledge, 1994, P.20
3. Diana Epstein, Millicent Safro, BUTTONS, Abrams, 1991, P.23
4. 구애리나, 이순홍, op. cit., P.248
5. Diana Epstein, Millicent Safro, op. cit., P.23
6. Vernar Moulon, "Button", Encyclopedia Americana Vol. 2, Americana, 1975, P.77
7. The World Book Encyclopedia, Vol.2, Field Enterprises Educational Corporation, 1970, P.630
8. Diana Epstein, Millicent Safro, op. cit., P.23
9. Françoise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Abrams, 1965, P. 82
10. 구애리나, 이순홍, op. cit., P.251
11. Diana Epstein, Millicent Safro, op. cit., P.23
12. 강두욱, 김진구, 18·19세기 단추의 象徴性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18호, 1992, P. 225
13. Jane Ashford, The Art of Dress: Clothes and Society 1500-1914, Abrams, 1996, P.182
14. Naomi Tarrant, op. cit., P.20
15. Naomi Tarrant, op. cit., P.18
16. Naomi Tarrant, op. cit., P.18
17. Naomi Tarrant, op. cit., P. 12
18. Adam Smith, 김종원 역, The Wealth of Nations, 정연사, 1960, P.6-7
19. The Tokyo Costume Institute, Revolution in Fashion: 1715-1815, Abbeville Press, 1994, P. 153
20. Carl Köhler, A History of Costume, Dover, 1928, P.140
21. Françoise Boucher, op. cit., P.180
22. 스테이스(stays)는 코르셋의 다른 명칭으로 17-18세기에 주로 사용되었다.
23. Naomi Tarrant, op. cit., P.20
24. Jane Ashford, Dress in the Age of Elizabeth I, B. T. Batsford, 1988, P.13
25. Naomi Tarrant, op. cit., P.20
26. www.deutschestandards.de/ds/Druckknopfe.htm
27. Alison Lurie, 'Best Fashion: A Perfect set of Teeth', New York Times, April, 18, 1999
28. Naomi Tarrant, op. cit., P.23
29. Palmer White, Elsa Schiaparelli: Empress of Paris Fashion, Aurum Press, 1986, P. 126-8
30. Alison Lurie, The Language of Clothes, Owl Books, 1998
31. Nellie Thornton, Fashion for Disabled People, B. T. Batsford, 1990, P.70
32. 조경희, Stretch Aesthetics In Contempory Fashion Design, 한국복식학회지, 46호, 1999, P. 85
33. Gap-D, Vol. 1, 1999, Mar. Gap-D, Vol. 2, 1999, Oct.
34. Gilles Defour는 Chanel의 Karl Lagerfeld 밑에서 15년 동안 어시스턴트로 일한 경력이 있으며 최근에 Balmain의 수석 디자이너로 발탁되어 '99-00 가을/겨울 파리 컬렉션에 처음으로 참여하였다.
35. Yoichi Nagasawa는 No Concept but Good Sense의 디자이너로 동경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92년도에는 Mainichi Fashion Award를 받았다.
36. Mark Montano는 뉴욕의 FIT 출신으로 '91년도에 자신의 브랜드를 시작하였으며 '98년도부터 뉴욕 컬렉션에 참가하고 있다.
37. Alexander MacQueen은 현재 House of Givenchy의 수석 디자이너로 활동함과 동시에 자신의 브랜드를 갖고있는 파리 오뜨꾸뛰르의 현역으로서 가장 젊은 디자이너이다. 영국이 자랑하는 디자이너로 Central St. Martin 출신이며 과거의 복식에서 많은 영감을 얻는다.
38. Tristan Webber는 entral St. Martin을 '97년도에 졸업하고 바로 자신의 브랜드를 시작한 영국의 차세대 유망 디자이너이자 런던 컬렉션을 이끌어야 할 영국의 5번째 스타 디자이너로 지목되고 있다.
39. Massimo Rebecchi는 '84년 니트 디자이너로 시작하여 '95년도에는 자신의 브랜드를 시작하였다. 현재는 자신의 브랜드와 동시에 Max Mara의 니트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40. Max Azria는 BCBG Max Azria라는 브랜드로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디자이너이다. 미국적인 실용주의 패션에 유럽풍의 감각을 가미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고있으며 뉴욕 컬렉션에는 '96년부터 참여하였다.

41. 조경희, op. cit, P. 85
42. Michel Klein은 15세부터 Yves Saint Laurent의 밑에서 일했으며 구두, 니트, 의류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후 '80년도에 자신의 브랜드를 시작하였다.
43. Takao Yamashita는 Beauty:Beast의 디자이너로 '91년도 오사카 컬렉션으로 데뷔해서 '94년도부터는 파리 컬렉션과 동경 컬렉션에 참가하고 있다.
44. 구애리나, 이순홍, op. cit, P.248
45. 더플은 벨기에의 한 지명으로 그 곳에서 생산되는 더플 클로스라는 소재는 복구의 어부들이 코트지로 사용했다. 더플 코트는 제2차 세계대전중 영국 해군소속 북해 경비의 근무복으로 채용된 후로 급속히 일반화된 캐주얼 코트로 더블 브레스트에 후드가 달린 7부길이가 특징이다.
46. Antonio Berardi는 이태리인으로 John Galliano와 함께 수년 동안 일했으며, '94년도에 Central St. Martin을 졸업한 이후 '95년부터 밀라노 컬렉션에 참여하고 있다.
47. Helmut Lang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태생의 디자이너로 '86년 파리에서 데뷔하여 현재는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니멀하고 미래지향적인 룩으로 유명하다.
48. Stephen Sprouse는 미국 디자이너로 Halston과 Bill Blass에서 일했으며 '83년에 자신의 브랜드를 시작하였다. '99-00 가을/겨울 뉴욕 컬렉션에는 '97년 화성탐사시의 3D 이미지를 이용한 미래적인 패션을 선보였다.